

이번의 유럽의회 선거 ... '反 EU' 확인했다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일부 국가에서 유럽연합(EU) 정책에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제1당을 차지하는 등 반(反)유럽연합(EU), 반(反)유로화 정세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반EU와 함께 이민 반대 등을 앞세운 군소정당들이 기존의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약진, 기성 정치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선거 결과.

◇독일=EU 최대 경제국으로 EU 통합을 주도한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CSU·기사당) 연합이 35.5% 득표율로 승리했다.

하지만 기사당의 부진으로 지난 2009년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37.9%)과 지난해 총선(41.5%)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98% 개표 시점에서 기민-기사당과 연립정부를 운영하는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이 2009년(20.8%)보다 크게 오른 2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유로화 통용을 반대하는 신생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7%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로 원내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여론조사기관의 출구 조사 결과 극우정당인 국민전선(NF)이 약 2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에 오른 것은 자유당이 승리한 1906년 총선 이후 108년 만이다. 반이민·반EU 정책을 표방한 독립당은 지난 22일 유럽의회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161석을 늘리며 전국 단위 지지율 16.5%에서 확보,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리스=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제1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간발의 차이로 집권 여당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율 40% 상황에서 시리자는 26.4%를 얻어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신민당에 3.2%포인트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당수가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내오니아 성향의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이 9.37%로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신민당은 당시 3위를 몰러난 사회당과 손잡고 연립 정부를 출범시켰다.



영국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를 108년 만에 무너뜨리고 단숨에 1위로 도약한 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UKIP) 당수 나이젤 파리지(왼쪽 두번째)가 26일(현지시간) 사우샘프턴에서 선거결과를 전해 듣고 당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등 EU정책 반대 정당 약진...기성 정치권 위협 보수-노동 양당체제 영국 108년만에 제 3정당 1위

이같은 득표율은 마린 르펜 국민전선 당수의 주도 하에 반(反)이민·반EU정책을 주도해온 국민전선이 각종 선거에서 거둔 최고의 득표율이다.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얻었던 득표율 6%를 4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국민전선은 유럽연합의 프랑스 의석 74석 중 23~2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은 20~21%로 2위로 나타났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사회당(PS)은 14~15%로 3위에 그칠 전망이다.

◇영국=극우성향의 영국독립당(UKIP)이 영국 정치사에서 100년 넘게 유지돼온 보수·노동 양당체제의 벽을 허무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아직 총선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한 군소정당인 독립당은 절반 가까이 진행된 개표결과 29%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최다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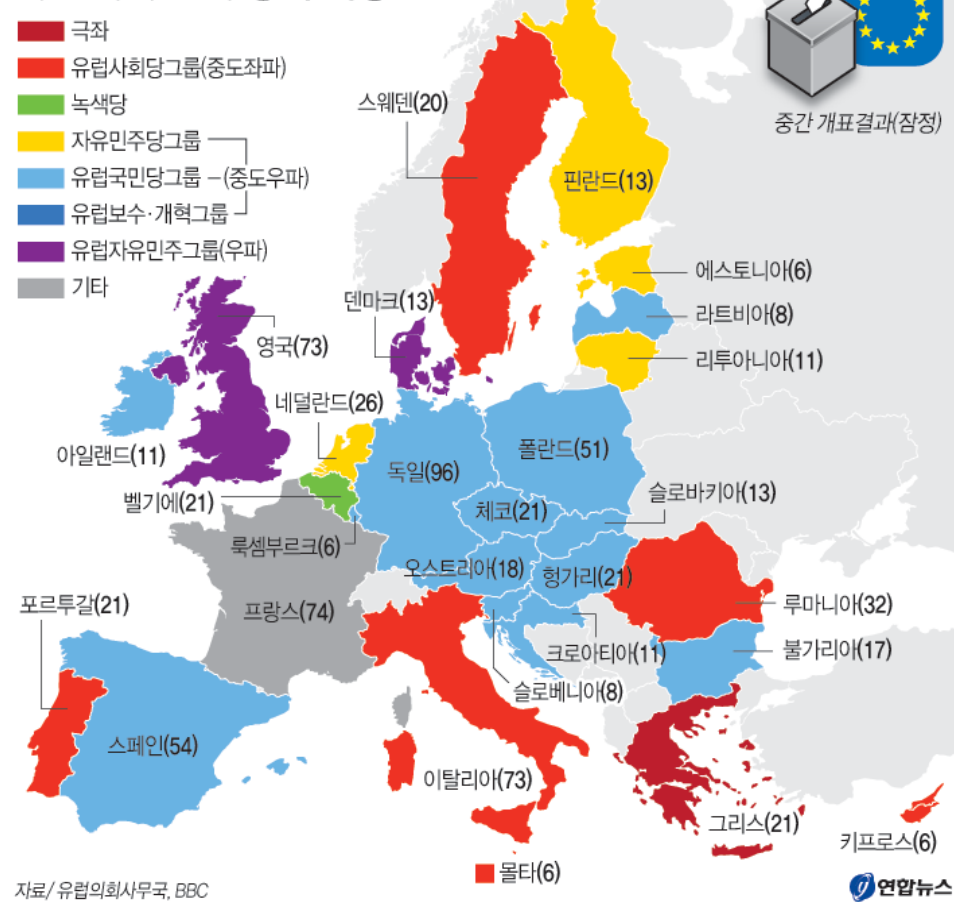
◇동유럽=폴란드에서는 여당인 시민강령이 32.8%를 얻어 보수야당인 '법과 정의'를 1% 포인트 따돌리고 간신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폴란드 의회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뉴라이트 연합'도 7%가량을 득표해 의회 진출이 전망된다. 헝가리에서는 여당 청년사회동맹(피데스)이 54%가량 득표해 제1정당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대인 추방과 EU 탈퇴 등을 공공연히 외치는 '요비크'(국가 수호대)가 15% 가까운 득표율로 사회당 등 야당을 따돌리고 2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통합에 반대가 비교적 강한 체코에서는 재벌 기업가가 기독교 세력을 개혁하자며 지난해 창당한 공명당이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이 출구조사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이 27.9~28.6%, 여당인 불가리아 사회당이 19.8~21.6% 득표율을 각각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유럽의회 선거 정치 지형도



우크라이나 유럽화 의지 천명

대통령 당선 유력 포로셴코 "푸틴과도 대화할 것"

우크라이나 대선 출구조사 결과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에 거의 확실시되는 재벌 출신 무소속 후보 페트로 포로셴코가 유럽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포로셴코는 출구조사 발표 후 연 기자회견에서 "85%의 국민이 우크라이나의 유럽화를 지지했다"면서 "유럽화 이행은 아주 중요하며 모든 권력기관은 향후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리주의 움직임이 거센 동부 지역 포용 의지도 강조하면서 취임 후 첫 방문지는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이 될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수천명의 크림인들과 수십만명의 돈바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선거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치러졌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관계 회복 의지도 밝혔다. 포로셴코는 "러시아는 우리의 이웃이며

현재 러시아 연방과의 관계는 최근 2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참여없이 우리 지역의 안보를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는 적절한 대화 형식을 찾을 것이며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부지역의 불법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점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유럽화를 지향할 것이라는 2가지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로셴코는 "의회에 위기가 존재할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선거"라면서 올해 안에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포로셴코는 4개 TV 방송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57.31%를 득표, 12.39%를 얻은 티모셴코를 압도적으로 누른 것으로 드러나 공식 개표 결과가 출구 조사와 비슷하면 2차 결선투표 없이 대통령에 당선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앞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영토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 미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과 서안지구를 구분하는 분리장벽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국왕 쿠데타 승인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이 지난 22일 군부가 선원한 쿠데타를 26일 승인했다.

프라윅 찬-오차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국왕이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프라윅 총장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쿠

데타 선원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인력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25일 밤 석방돼 귀국했다. 인력 전 총리가 프라윅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의 허가로 국왕 근위부대인 육군 제1사단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 전 총리는 군부의 소환 명령을 받아 23일 출두했으며, 이날부터 군부에 의해 구금돼 있었다. 인력 전 총리 외에 그동안 구금돼 있던 주요 인사들 일부가 석방됐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암신협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이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